

2007\_ 다원예술소위원회 포럼

# 새장르공공 예술의 공공성

2007. 6. 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다원예술소위원회

# - 새장르공공예술의 공공성 -

## 1. 행사개요

행사명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다원예술소위원회 포럼 - 새장르공공예술의 공공성

일시 : 2007년 6월 4일 (월) 오후 2시

장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미술관 세미나실

주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다원예술소위원회

발제 : 다원예술분야 새장르공공예술의 '공공예술'의 의미와 지향 - 김준기

### 사례 발표

- 경계없는 예술센터 (이화원) / 용광로 2007 경계없는 예술축제 문래동
- 이제 (이지혜) / 산따의 투유투미 프로젝트
- 문화연대 (송수연) / 예술의 사회적 실천을 위한 예술행동 매개 프로젝트
- 공화국리라 (전민정) / 귀향 : 군산내항의 역사적 생산자와 메모리얼 플레이스 만들기
- 대구공간문화센터 (김경민) / 삼덕동 마을 공동체 작업장 프로젝트 2007, 門花
- 비주얼씨어터 컴퍼니 꽃 (이철성) / 벽 in open space at 1830 project

## 2. 기획취지

### 새장르공공예술의 개입이 시작된다!

2006년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다원예술소위원회에서는 5번의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2007년에도 다원예술소위원회의 포럼은 새장르공공예술과 다원예술 비평활성화를 중심으로 연중 진행될 예정입니다.

2006년도 현장예술인들의 의견을 청취했던 성과를 바탕으로

2007년도 다원예술분야 사업을 설계하면서 다원예술분야의 활성화를 위한 중점사업으로 새장르공공예술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원예술분야는 기존의 장르개념을 넘어서 장르 해체 및 크로스오버를 자유롭게 실험하는 분야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예술개념을 창출하는 '실험예술 일 번지'로서 발돋움하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대중예술'과 '아마추어 예술'의 접합지대

를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공공예술’에 대한 담론을 찾아내는 것은 지금의 다원예술위원회가 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또한, 급진적인 문화사회를 추동해 내는 힘은 전문인 중심의 예술가들이 구축하고 있는 일방통행식의 예술생산이 아니라, 쌍방향의 소통이나 나아가 모두가 창작의 주체가 되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활동을 다원예술분야를 중심으로 확대해 나가려고 할 때, 우리는 예술의 공공적 성격과 함께 예술의 공공적 문맥의 생산에 대해 이야기해야 하며, 예술가들의 사회적 개입을 통하여 예술이 단순한 물질생산에 그치거나 예술적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조각하고 사회의 시스템을 창조해 내는 새로운 유형의 예술사회학의 단초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 다원예술에서 지향하는 ‘공공’ ‘공공성’은 무엇입니까?

최근 공공예술은 계속해서 확대시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문화관광부 주도하에 공공미술 추진위원회가 설립되었고, <Art in City>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경기문화재단은 <열 개의 이웃> 사업을 시행하였고, 올 해 들어 서울시가 도시 갤러리 프로젝트를, 인천문화재단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앞을 다투어 예술가들로부터 공공공간을 새롭게 디자인 하는 프로젝트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민간위원회 전환 후 2년째를 맞이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다원예술위원회는 지금의 공공예술의 담론적 지평을 다시 확인하고 현장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공공예술의 비평작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2006년 말의 지원심의에서는 새장르공공예술에 대한 다양한 접근, 즉 ‘공공’과 ‘공공예술’의 개념이 여러 층위에서 통용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먼저, ‘공공’은 누구인가? ‘공공’은 존재하는가? 예술의 공공성은 자율성과 어떤 관계에 놓이는가? 와 같은 본질적인 질문들을 비롯해 아직은 초기 단계인 다원예술분야 새장르 공공예술의 개념을 확립하고 향후를 모색할 필요성이 심사과정에서 대두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다원예술소위원회에서는 새장르공공예술에 대한 포럼과 선정된 13개 사업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6월 4일(월)에 열릴 첫 번째 포럼에서는 새장르공공예술 사업을 설계하게 된 배경, 이 사업의 의의와 선정된 사업 중 6개에 대해 각 사업에서 생각하는 공공성, 사업의 진행 과정, 사업의 의미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올해 유난히 폭발적으로 증가한 예술의 공공성에 대한 논의가 한 때의 유행으로 흘러가 버리지 않도록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기조발제>

## 다원예술분야 새장르공공예술의 의미와 지향

김준기 (예술학, 다원예술매개공간 운영단장)

### 1. 다원예술 새장르공공예술 공모사업

○ 사업 설계의 배경

- 탈장르실험, 장르혼용, 복합장르, 독립예술, 실험예술 등에 걸쳐있는 다원예술 분야의 지향을 공공예술의 맥락 속에서 재검토한다.
- 예술의 공공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예술 개념을 도출하기 위해서 특정 장르 일변도의 공공성 논의를 다원예술의 맥락으로 확장한다.
- 예술의 공공성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통해서 예술영역에 대한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논리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전략을 모색한다.
- 근대적 맥락의 예술적 자율성과 탈 근대적 맥락의 예술 공론장 논의를 통합의 수준에서 재검토함으로써 예술의 공공성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한다.

○ 사업의 내용

- 공공영역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하는 예술 프로젝트
- 문화적 소수자의 문화생산과 향유를 매개하는 예술 프로젝트
- 특정 장소나 사안에 개입하는 행동주의 예술 프로젝트
- 특정 공간을 활성화 하는 예술 프로젝트

### 2. 새장르공공예술의 정의

○ 새장르공공예술의 기본 개념

- 새장르공공예술이란 비물질적이며 비영구적인 예술실험을 지향하는 새로운 형식과 태도의 공공예술을 말한다.
- 새장르공공예술은 사적으로 소유가능하지 않은 예술을 말하며, 그것은 예술행위의 결과 뿐만 아니라 과정이나 절차에 있어서도 공히 해당한다.
- 이 개념은 예술을 심미적 수준의 창작과 향유의 과정만이 아니라 공공영역에서의 예술적 실천으로까지 확장해서 사고하려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 새장르공공예술의 새장르라는 용어는 결과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벗어나서 과정 그 자체에 주목하며 상호작용, 효율성 등을 주요 개념으로 도입함으로써 성립한다.
- 새장르공공예술은 모더니즘 예술의 폐쇄적인 창작과 매개, 소통의 방식들에 대한 반성적 성찰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

○ 새장르공공예술의 공공성

- 공공성을 염두에 둔 예술은 공공장소에서의 예술, 공공적 의제를 다루는 예술, 공공 기금으로 성립하는 예술 등으로 규명되고 있다.
- 공공의 요청과 예술가의 창의적 결합으로 성립하여 사회적 맥락과 참여민주주의의 성격을 가지는 공공예술은 특정한 장소의 역사성, 특수한 상황이나 의제, 특정한 커뮤니티 등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요청한다.
- 새장르공공예술은 예술의 공공성을 예술의 자율성과 공존의 맥락에서 검토하는데, 이때 공공성과 자율성의 범주를 ‘공공영역에서의 예술적 실천’이라는 규정 범위로 한정한다.

○ 포스트모더니티 논의와 새장르공공예술

- 포스트모더니티 논의는 모더니티의 체계적인 영역분할에 대한 반성으로서의 탈분화 과정을 해명함으로써 미술의 실천적 영역과 창작 방식에 있어서 실재와 기표, 현실과 예술 간의 새로운 관계설정에 당위성을 제공한다.
- 모더니즘 예술 이후의 예술로서의 포스트모더니즘 예술 실험을 탈분화의 맥락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하되 그것을 예술의 장 안과 밖에서 공히 실현가능하게 한다.
- 이를 기반으로 하는 일상생활의 미학화 개념이나 매체, 스타일, 장르의 해체와 중복 등 미술 영역의 확장과 다원주의적 양상은 미술의 탈제도화나 사회적 실천들과의 통합 등과 같은 유연성을 제공한다.

3. 새장르공공예술의 지위와 역할

○ 새장르공공예술의 지위

- 예술가의 행위 과정은 ‘경험, 분석, 보고, 행동’의 단계로 나눌 수 있다. 공공적인 예술이란 ‘개인의 경험에 따른 주관적 감성을 공감시키는 단계로부터 정보를 공유하고, 상황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며, 나아가 새로운 합의를 세워내는 과정’으로서 예술 행위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다.
- 공공영역(public sphere)에서의 예술적 실천은 공론장에서의 예술가의 지위를 점검하는 것으로부터 그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다.

경험자로서의 예술가-분석가로서의 예술가-보고자로서의 예술가-행동가로서의 예술가  
 주관성의 공감 ----- 정보의 공유 ----- 상황에 대한 해답 ---- 새로운 합의 도출  
 private art ----- public art

○ 새장르공공예술가 역할

- 예술공론장 속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는 창의력과 상상력이 넘치는 예술가이자, 예술가 집단의 조직가이며, 특정 상황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고 보고하는 이슈 파이터이자, 정치적 맥락 속에서 시민사회의 새로운 합의를 이끌어 내는 사회적 퍼포먼서이다.

- 새장르공공예술은 ‘예술을 통한 공동체 건설, 사회적인 표현, 공공적인 안전을 만드는 새로운 미술가의 역할’ 등의 특성에서 드러나듯이, ‘주체의 문제나 장소의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활성화된 가치체계의 미학적 표현 ‘을 시도하는 참여적 성격이 강하다.
  - 새장르공공예술은 ‘다양한 관객들과 삶의 이슈를 소통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매체를 사용하는 예술 ‘을 의미하며, ’ 장소(site)의 역사적, 생태적, 사회적 측면에 대한 관심으로 관객과의 관계설정을 모색하는 ‘ 예술이다.
  - 사회구조 속에서 적극적인 역할 모델로서 예술가의 지위를 가지는 새장르공공예술은 의제를 설정하고 발상을 전환하는 새로운 예술가 모델을 창출한다.
- o 공공영역에서의 예술적 실천의 규모와 방법
    - 예술적 공공영역의 크기는 국가단위에서 유포하는 공공성이나 자본의 논리에 포섭된 언론이 조작하는 여론 형태의 공론장과는 다른 규모와 방법을 가진다.
    - 새장르공공예술이 만들어내는 공공성은 예술적 실천이 기능할 수 있는 적절한 규모와 그에 걸맞은 방법을 모색한다.
    - 새장르공공예술은 예술적 실천으로 성립가능한 방법론을 찾아가되 그것을 동시대 사회의 규범이나 윤리에 입각한 공공성과 긴장관계 속에서 실행한다.
  - o 예술노동의 사회적 교환방식의 재구조화
    - 예술노동이 결과하는 물질형식의 존재방식을 근본적으로 재성찰함으로써 예술작품이라는 물질과 화폐의 교환이라는 기성의 교환방식을 재검토한다.
    - 이때 예술창작을 위한 물질 토대로 작용하는 화폐가치가 자본의 자기증식 수단으로 전화하는 대목에 대해 창조적으로 개입하여 예술의 사용가치가 교환가치로 전도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한다.
    - 예술노동이 사회적 공공적인 기체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교환방식에 관한 새로운 대안을 만들기 위해 작은 사례들을 만들어 나간다.

#### 4. 새장르공공예술의 전망

- o 새장르공공예술 프로젝트의 단기 전망
  - 다원예술 부문의 탈장르 및 혼합과 혼용의 예술실험에 있어 예술의 장 안과 밖을 넘나드는 새로운 사례를 만들어낸다.
  - 예술계에 대한 공적 자금의 투여를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전환하는 데 기여할 만한 사례를 만든다.
  - 공공영역과 예술의 결합과 분리, 상생과 갈등을 만들어냄으로써 생활세계와 예술세계의 경계를 넘어서는 탈분화 예술의 역할모델을 창출한다.
- o 새장르공공예술 프로젝트의 장기 전망

다원예술위원회 새장르공공예술 포럼

- 예술의 생산과 매개와 향유를 전일적인 가치체계 안에서 매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와 예술생태의 건강한 관계정립을 위한 대안을 창출한다.
- 예술과 비예술, 제도와 비제도, 전문성과 아마추어리즘의 경계를 완화함으로써 새로운 예술을 실현하는 데 기여한다.
- 예술이 자본의 비대화화 이에 대응하는 국가의 역할 사이에서 대안적 실천 영역으로 자리 잡는 데 기여한다.



<사례발제 1>

용광로 2007 제1회 경계 없는 예술 축제 문래동

이화원 ( 경계없는 예술센터 대표)

1. 행사개요

1) 사업목적

경계없는예술센터(ASF)는 오늘의 사회에서 위축되어버린 예술의 대사회적 치유기능을 존중하고 “극장과 장르, 국경을 넘는 새로운 양태의 공연예술”을 연구하여, 현대 도심의 황폐한 삶의 환경에 예술을 통한 꿈과 환상을 제공하는 문화운동으로서의 거리예술을 보급하고자 한다. 단체가 소재한 영등포구 문래동 철재시장 내의 환경을 중심으로 펼쳐질 본 프로젝트는 지역의 철공소, 초등학교 및 지역 소재 예술단체들의 인력과 자재가 창작에 직, 간접적으로 참여하여 만들어내고 지역민들과 함께 향유하게 될 환경적 참여예술 및 다원공공예술프로젝트로서, 철재를 녹여 공공 공간에 예술의 꽃을 피우는 용광로의 기능을 수행하고자 한다.

2) 사업개요

사업명: “2007 경계없는예술프로젝트@문래동 (부제: 용광로에서 희망나무를)

주최/주관: 경계없는예술센터 (ASF)

후원: 한국문화예술진흥위원회, 영등포구청

협찬: 주식회사 티스름, 홈 플러스 (협의중)

장르: 다원공공예술 (거리극, 퍼포먼스, 마임, 현대무용, 사진, 영상, 음악, 설치미술, 혹은 장르의 병합 및 융합)

주요참여자: 이화원 (총기획, ASF 대표, 상명대 공연학부 교수)

안병한 (지역자문위원, 용인철강 대표이사, 미협 정회원)

윤기훈 (예술감독, ASF 상임연출, 극작가)

이정은 (홍보팀장, 코르 코르디움 대표)

참여단체 및 예술가: 댄스컴퍼니 On&Off; 퍼포먼스 SORO; 창작집단 환; 실제상황즉흥 프로젝트; 민균홍 (조각가, 서울대 강사); 신미혜 (사진작가, School of Arts University MFA); 김은숙 (배우, 한국예술종합학교 강사); 황민수 (영상그래픽디자이너); 등.

### 3) 사업내용

문래동 지역에 소재한 다양한 예술단체가 참여하는 다원공공예술프로젝트인 본 행사에는 총 8개 단체 및 개인의 12개의 작품이 선보이게 된다.

지역 소재 예술단체 및 예술가들은 그들이 그동안 문래동 지역을 터전으로 작업하고 생활하면서 창작한 작품들 중 이번 행사에 가장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작품을 선별하거나 새롭게 창작하여 일상 공간 중 한 장소를 선택하여 공연한다.

특히 피날레 행사로 기획되는 조형물 “희망나무”의 제막은 재래식 철재시장과 첨단 복합테크노 단지, 신흥 아파트촌, 상업지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문래동의 특성을 창작에 반영하고, 이 지역을 삶과 일의 터전으로 생활하고 있는 지역민들로부터 작품 창작에 대한 직, 간접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 사회의 희망적인 미래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완성한다.

조형물은 지방 자치단체의 협조를 얻어 지역사회의 상징으로서 영구 보존될 수 있도록 한다.

### 4) “경계없는예술프로젝트”의 의의

- 2007년을 원년으로 경계없는예술센터(ASF)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공공예술프로젝트.
- 문화, 예술적으로 소외된 지역, 혹은 도심의 일상에 침투하여 메마른 삶의 환경에 예술을 통한 환상과 희망을 제공하는 문화운동.
- 오늘의 사회에서 위축되어버린 예술의 대사회적 치유기능을 적극적으로 구현.
- 예술이 삶의 여유와 경제적 풍요를 누리는 소수 계층의 특권적 향유물로 국한되는 현실을 극복.
- 지역적 특성과 지역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능동적인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창작활동.

### 5) “Blue Arrow”

- “경계없는예술프로젝트”의 상징이자 엠블럼(Emblem)으로서 닉네임으로도 활용함.
- 일상 공간으로 부터 예술창작의 무대로 변환되어 활용된 특정한 장소를 푸른 화살표(블루 애로우)로 구분함.
- 공연 전, 블루 애로우로 표시하고 공연이 끝난 후에도 이를 보존하여 예술적 감흥의 흔적을 남겨둠.

## 2. 참가예술단체 및 작품개요

### 1) ASF <조형물 “희망나무”>

구상: 윤기훈

자문: 민균홍 (조각가, 서울미대 조소과 강사)

창작 및 제작: 이윤, 신미혜 외 ASF 단원

제막 시간: 06/30; 17:00

장소: 흙 플러스 앞 광장

성격: 설치예술; 주민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희망”이라는 주제로 제작; 철재를 뼈대의 주 소재로 함; 모바일성격가미; 영구전시를 일차적 목적으로 함; 주민공동참여유도 (영등포 초등학교 공예, 주민들이 게시판에 올린 사진 등을 소재로 함)

### 2) ASF <이동거리극>

구상 및 총연출: 윤기훈

에피소드별 작, 연출, 출연: 각 에피소드 별로 참가; 김은숙, 신동력, 임길호, 윤미연, 박진영, 등

시간: 06/29, 30; 21:00~22:00

장소: 철재시장 골목

성격: 이동거리극; 4~5개의 에피소드로 구성

### 3) 신미혜 <영상쇼>

사진, 구성, 연출: 신미혜

시간: 06/29,30; 20:00~20:30

장소: 철재시장 골목

성격: 문래동을 소재로 한 사진작가 신미혜의 작품 및 주민들의 사진 등을 영상으로 구성한 작품

### 4) 댄스컴퍼니 ON & OFF <제목미정>

안무: 김은정

출연: 김은정 외

시간: 06/29,30; 18:00~18:30

장소: 철재시장 내 컴퍼니사무실 앞

성격: 무용

### 5) 창작집단 환 <제도 2>

연출: 솔문

출연: 솔문, 이선희, 오성환

미술: 김미경

시간: 06/29,30; 18:30~19:00

장소: 철재시장 내

성격: 거리극

#### 6) 실제상황극홍콩프로젝트 <죽홍>

연출: 백호울

움직임 : 한승연, 나이동, 송재연, 백호울>

영상 :정원희

시간: 06/29-30; 19:00~19:30

장소: 철재시장 내

성격: 거리극

#### 7) 퍼포먼스 SORO <제목미정>

연출: 문재선

출연: 문재선 외

시간: 06/29-30; 19:30~20:00

장소:

성격: 퍼포먼스

#### 8) ASF <“희망나무” 제막행사>

기획: 송성희

출연: 섭외중

시간: 06/24; 15:00~15:45

장소: 홈플러스 앞 광장

성격: 제막식 전 공연

### 3. 조형물 “희망나무” 단계별 창작과정 -다원적 공공예술프로젝트-

□ 1단계: 참여홍보 및 설문조사

■ 행사기간 최소 3주 전, 2주간 진행한다.

■ 설문조사가 끝나도 참여홍보는 계속 진행한다.

■ 문래동 주민 및 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참여방법을 설명하는 전단지를 배부하며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삶과 일의 터전인 문래동의 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커뮤니티의 발전을 위한 희망사항을 조사한다.

■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문래동 사람들의 커뮤니티에 관한 인식을 분석하여 조형물이 상징할 수 있는 의미를 찾아낸다.

□ 2단계: 나무 기초조형물 제작

- 나무의 기초형태를 철제로 제작한다. 가지는 움직임이 가능한 형태로 제작하고 주민의 창작물을 첨가하기 위한 각종 장치를 고안한다.
- 나무의 기초형태는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커뮤니티의 아이덴티티를 상징할 수 있는 작품으로 디자인한다.

□ 3단계: 기초조형물 전시 및 공동 창작 프로젝트 진행

- 최소 1주, 최장 2주간 진행된다.
- 문래동 삼성 홈플러스 앞 거리광장에 기초조형물을 전시한다.
- 기초조형물은 야간에 조명효과를 주어 주민들의 관심을 유발한다.
- 공동창작(주민참여) 방법 (예)
  - ① 희망나무에 자신의 소망을 적은 메모지를 나무에 모바일 형태로 매달아 나뭇잎을 조형하도록 한다. 메모지는 단단한 하드보드로 만들고 코팅 등을 하여 쉽게 훼손되지 않도록 하며, 나무에 부착할 때는 단단한 쇠고리로 연결토록 한다.
  - ② 희망나무의 열매를 창작하고 싶은 사람들은 미리 만들어 온 조형물을 나뭇가지에 매달도록 한다. 영등포 초등학교와 문래 초등학교에서는 특별활동 교육과 연결하여 어린이들에게 열매를 제작하도록 하여 완성된 열매를 조형물에 제공한다.
  - ③ 희망나무의 열매에 활용될 수 있도록 디지털카메라로 문래동 주민들 자신의 관심사나 흥미를 사건으로 찍어 홈페이지에 남기도록 한다. 사진의 활용을 위하여 지하철 광고판화 형 제작물로 만드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외부적인 훼손의 방지책 - 방수와 비바람에 대한 내구성 등- 을 갖추는 것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 ④ 조형물 창작 자문위원과 진행스태프는 점점 자라나게 되는 희망나무 조형물의 심미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창작 과정에 지속적 관심과 보조적인 도움을 준다.

□ 4단계: 조형물 제막식

- 조형물이 정해진 기간 내에 완성되면 막으로 가려 최종형태를 숨긴다.
- 조형물의 공동창작에 참여한 사람들, 일반 주민들, 문래동장, 지구 대 대 장 , 등,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모여 제막식을 거행한다.
- 조형물은 제막식에서 이름이 공표되고(조형물의 이름은 공모로 진행할 수도 있음) 현판식을 거행한 뒤, 자치단체의 협조를 얻어 영구 전시되도록 한다.
- 희망나무의 탄생을 축하하는 지역사회 예술단체들의 특별 공연 - 음악, 무용, 퍼포먼스 등-이 진행될 수 있다.
- 영구전시가 불가능할 시에는 약 한 달간 전시한 뒤, 철거한다.

## <사례발제 2>

# 산따의 투유투미 프로젝트

이제 (이지혜)

## 1. 산따

92년생 산따는 아직은 열여섯 미성년. 방글라데시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며 6년 전 가족과 함께 이곳에 이주해 미등록 체류 중인 소녀입니다. 어쩌면 소녀라는 말은 주관적인 표현일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방글라데시에서 그 나이면 대부분 성년으로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좀 더 객관적인 설명을 보충하자면 몇 년 전 아버지가 강제 추방당하시면서 어머니 혼자 두 아이의 양육을 포함한 생계를 꾸리고 계시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2년 늦게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지금은 남양주시 금곡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입니다(현재 한국에서는 중등과정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이 글을 이 친구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하는 이유는, ‘산따’ 라고 하는 한 개인이 이번 프로젝트의 시작동기이면서도, 모든 과정에서 느껴지는 한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후에 좀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2. 2006 마석이야기

저는 2006년 작년 경기도 남양주시 마석에서, 아트 인 시티에서 주최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인 '마석이야기'에 'A&C 삼거리'의 일원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이곳은 1960년 초 80여명의 한센인들이 자립적 공동체를 만들어 살기 시작한 곳이며 90년대 초 가구공단이 형성되면서 현재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장이 불법 무허가 공장들이며 900여명에 달하는 외국인 노동자들 중 많은 수가 미등록노동자, 불법체류의 신분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당시 저희 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마을 사람들이 자립적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확보에 있었습니다. 저희가 추진한 안들 중에는 네팔 남자 축구팀의 결성 및 각 지역팀들과의 경기추진과 여성노동자들의 뜨개질을 통한 소규모 친목 모임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공단 내 자리한 녹촌 분교의 미술수업, 이러한 프로그램을 토대로 한 학교 내 배수로공사 및 여러 시설을 위한 미술작업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녹촌분교의 운동장이 이 마을의 커뮤니티가 형성되는 유일한 공공장소였기 때문에, 이 장소에 대한 요구가 하나로 통합되면서 각각의 프로젝트는 따로 또 같이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며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 3. 시작과 기대

2006 '마석이야기' 이 후 2007년 지금의 작은 프로젝트를 이어가게 된 것은 전체 프로젝트에서 미처 건드리지 못한, 개개인의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유쾌한 사건들을 좀 더 만들고 싶은 생각에서였습니다.

제가 공공미술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1. 소수자라고 하는 일반화 된 대상이 아닌, 나와 개별적인 개인과의 관계입니다(예를 들어, 나와 산따, 나와 샤킬...)
2. 이러한 관계속에서 진행되는 작업의 상호 소통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결과의 다변성을 고려하며
3. 최종적으로는 삶에 위로와 기쁨과 희망을 만드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별적인 관계로부터 시작되는 최소단위의 공공성이 바로, 공공미술의 바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4. 유쾌한 사건 1 : 산따의 돌맹이

처음에 저와 산따는 '편지'라는 고전적인 방식을 통한 대화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다른 방식의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처음 기획을 수정하게 된 몇 가지 요인 중 하나는 산따와 제가 편지를 시작하는데 있어서 동기와 목적, 입장이 각자 달랐다는 것에 있었습니다. 선생님과 학생, 열세 살의 나이차, 현지인과 외부인으로써의 다른 일상 등은 처음에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매우 좋은 조건으로 생각됐지만, 결국 그 차이는 우리의 관계구조가 수평 위의 두 점이 아닌, 수직의 모습이 되기 쉽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가지고 진행한 편지들을 보면서 (나)는 인터뷰어(산따)는 인터뷰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산따가 어떤 사건의 내부에, 나는 그 사건의 외부에 있게 된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거기서 만들어진 이야기는 어쩌면 개인을 둘러싼 조건들에 나의 상상력을 붙여 만든 진짜 같은! 허구가 될 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었고, 이러한 방식으로는 함께 동등한 주체로써 서로를 이해하고 생각을 교환하고 기억을 나누는 소통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고민 중에 함께 할 수 있는 무엇, 산따가 좀 더 주체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일을 찾게 되었습니다. 산따가 졸업한 녹촌 분교에서 함께 후배들의 미술수업을 진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수업은 현재 두 달째에 접어들었으며, 산따는 학교를 위해 무언가 한다는 사실에 대해 기뻐하고 있고 우리들의 편지도 예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다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녹촌 분교수업은 작가 신하정과 이제, 산따가 함께 진행 중이며, 점점 산따의 비중을 늘려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름방학 때 본격적인 수업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돌맹이의 여행' 은 산따가 이끌어 갈 수업제목 중 하나입니다.

### <돌맹이의 여행>

일시: 녹촌분교 하계방학 중 3회 총6시간

과제형태: 과거 소품이나 수학여행을 가게 되면 기념품 가게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기념품 중 예쁜 그림과 문구가 그려져 있었던 추억의 작은 돌맹이.

과제의미: 소소한 예술행위가 주는 기쁨과 가치를 체험하고, 작지만 중요한 가치를 지닌 것들에 대하여 토론을 통해 함께 찾고, 그것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법을 알게 한다.

- 방법: 1. 이 수업 의미를 아이들 수준에 맞추어 충분히 설명한다..  
2. 주제(미정)에 맞추어 작은 돌에 그림이나 글을 넣는다.  
3. 백개의 완성된 돌을 운동장, 마을 구석구석에 놓는다.  
4. 이 돌은 구르며 이동을 하거나, 제자리에 정지해 있을 수도 있으며, 사라질 수도 있다.

## 5. 유쾌한 사건 2 : 라씨의 녹촌마크

라원식씨는 언어장애를 앓고 있는 현철,현주,현수의 아버지로 현재 녹촌 분교 재학생의 부모 중 유일하게 본교 출신입니다.

현재는 마석가구공단에 위치한 성공회 성당 복지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30년 넘게 마석을 떠나지 않은 그의 자리는, 작지만 분명히 마석의 굴곡진 역사의 중심에 있습니다.

마석가구공단이 수년 내 재개발 될 것이라는 계획은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철이 아버지가 이곳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녹촌분교가 그 자리를 지켜줄 원하는 것입니다. 일대가 전부 아파트와 상가로 변할지라도 그 장소만은 공공성을 지닌 어떤 장소로 남아있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좀 더 큰 규모의 학교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 보지만 이미 인근에 가구공단을 둘러싸고 녹촌분교의 본교를 포함하여 이미 큰 초등학교들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얼마전 라원식씨로부터 30년 전 학교를 같이 다닌 동창들과의 연락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라원식씨를 중심으로 또 하나의 유쾌한 사건이 기획되고 있습니다.

### "제1회 녹촌분교 동문회"

분교라는 이유로, 입학식, 졸업식 등 공적인 행사는 항상 따로 떨어진 본교의 행사에 속해져 진행됩니다. 6년내리 가족처럼 지내면서도 어찌된 일인지 분교만의 동문회는 한번도 개최된 적이 없습니다.

2007년 가을, 운동장의 은행나무가 노랗게 무르익은 시절에 녹촌분교의 처음이자 마지막 동문회를 열고자 합니다. 당시 계셨던 선생님과 지금의 선생남도 초대하고자 합니다. 현재 재학중인 학생, 소사 할아버지 할머니, 모두 괜찮습니다. 아니 녹촌분교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함께 모여 기억을 나누고 희망을 모아봅니다. 단체 사진도 찍고 먹거리도 나누며 녹촌분교의 희망을 노래하는 퍼포먼스에도 참여합니다.

## 6. 유쾌한 사건 3 : 샤킬의 찾아가는 공작실

샤킬은 산따의 남동생입니다.

뭐든지 붙이고 칠하고 새롭게 변신시키는 게 취미인 10살 샤킬.

어느 날, 동네 골목에서 그가 자신의 오래된 세발자전거를 척척 도색하고, 버려진 스티로폼과 외국인 노동자들의 전화카드와 골목길 담벼락의 무궁화를 이용해 자기 키만한 탱크를 똑딱 만들어 내는 것을 보고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샤킬에게 공작은 일상 속의 신나는 놀이일 뿐이지만, 그의 반짝이는 발명품으로 마석의 풍경 또한 반짝반짝 풍성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주로 샤킬이 하루 종일 놀 수 있는 휴일에 만남을 갖습니다. 만나는 시간을 이용하여 나무를 이용한 이런저런 박스형태의 무엇을 만들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이렇습니다. 어느 정도 만들어지면 우리는 일단 그것을 가지고 샤킬의 이웃집부터 슈퍼, 철물점, 미용실, 분식점, 샬롬의 집 등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든 것이 쓰여질 수 있는 방법을 그들과 이야기합니다. 놓일 곳이 확정되면 쓰임에 맞추어 디자인과 기능을 업그레이드 하고 작품이 완성되면 그것을 받게 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과 교환을 합니다. 예를 들어 그 장소가 미용실이라면 작품이 놓여지는 대신 머리를 깎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샤킬의 공작소는 현철이, 성일이 등의 이웃친구들과의 협업과, 이웃에 사는 네팔 노동자인 모나주, 어쪽의 도움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 7. 우리의 마석이야기 : 발간

그동안 아무도 기억하지 않던 이 곳에도 개발에 대한 희망(?)이 싹트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 속에 이주노동자의 삶과 한센인들의 기억을 위한 자리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언젠가 사라져버릴 운명이지만 기억된 적이 없으므로 사라질 수조차 없는 이 역설적인 기억들을 이 곳에 살고 있는 자들의 시선을 통해 복원해 보고자 합니다.

이런 개인적이고 소소한 이야기들은 책이라는 매체를 통해 미지의 관객과 독자를 만남으로써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고 공유한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2007년 진행 된 산따의 돌맹이, 라씨의 마이크, 샤킬의 찾아가는 공작실과 그 뒷 이야기, 주민인터뷰등을 한 데 모은 이 책은 그 동안 잘 드러나지 못했던 마석가구공단의 주민들, 한센인들, 그리고 이주노동자들의 삶을 건강하게 보여주고, 살아있는 동네로서의 희망을 보여 주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 8. 내 가슴 속의 물음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가장 또렷한 변화를 느끼고 있는 사람은 바로 저 자신입니다. 나의 렌즈로 본 세상에 대한 고정된 시점이 ‘작가적 시선’이라며 고집스런 착각을 부렸던 때에는, 세상과 만날 수 있는 많은 창구를 닫고 ‘소통’이라는 막연한 고민만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마석에 간 이유는 소외된 역사를 가진 곳, 소수자의 공간, 자본주의 세계에서 우리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낙후된 개발 예정지로서 장소가 보여주는 사회비판적인 성격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개개인을 통한 시간이 쌓여지고 예기치 못한 사건을 함께 경험하고 그리고 함께 어떤 것을 해나가면서 그 사이의 수많은 이야기-갈등과 화해와 침묵과 발산으로 이루어진-들은 이곳이 사회 이슈 안에 존재하는 관념의 공간이 아닌, 위기와 희망이 공존하는 인간적 가치들이 뜨겁게 살아있는 세계임을 알게 했고, 나 또한 한 인간으로서 현장에서 구체적인 어떤 것을 실천할 수 있는 동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 <사례발제 3>

## 「 예술의 사회적 실천을 위한 예술행동 매개 프로젝트」

### \_ 그림에도 불구하고

송수연 (문화연대 활동가)

#### 1. 들어가며

우선 다소 무겁고 추상적인 주제라는 점을 인정한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문화연대가 시도하는 이 프로젝트는 지금까지 고민하고 실천해 온 ‘문화행동’의 또 다른 움직임을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화연대는 그동안 예술가, 활동가들이 사회적 이슈에 개입, 참여하는 사건을 함께 디자인 해왔다. 또한 공공적인 문화 활동을 기획하고 매개하는 다양한 사례들을 실제 만들어 왔다. 이는 곧 문화행동이라는 발화 행위를 통해 문화운동을 실천한 것이다.

이러한 활동과 네트워킹의 경험을 좀 더 생산적으로 확장하기 위해 예술행동 매개 프로젝트가 기획되었다. 서로 다른 영역에서 각각의 생존 방법을 찾아온 문화와 예술의 사건과 활동 사례들을 수집, 분석하며 재생산하는 과정이 이제는 필요하다. 그 과정을 통해 예술의 사회적 실천으로서의 문화행동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발화방식을 찾으려고 한다. 특히 기존의 접근 방식을 뛰어 넘는 상상력과 아이디어, 새로운 실천 방식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술의 사회적 실천에 대한 인식과 고민, 문화행동에 대한 정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행동을 고민하는 주체들을 찾아내고, 함께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일상과 사회의 변화를 위한 사건과 쟁점을 스스로 정리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서는 직접 행동으로 실천해 보는 것까지가 이번 프로젝트의 주요 목적이다.

#### 2. 프로젝트의 가능성

##### ○ 예술의 사회적 실천?

*‘사회와 충돌하며 예술의 다른 생존 방식을 모색하다.’*

‘예술의 사회적 실천’, 누가 이 개념과 방향에 대해 쉽게 정의 내릴 수 있을까? 예술의 사회적 실천이란 여전히 모호하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사회로 향하는 역동적인 실험과 실천은 사회 시스템 안과 밖에서 지속되고 있다.

이 프로젝트에서 말하는 예술의 사회적 실천은 예술의 다른 생존법을 생성하고 의미화하며 사회적인 에너지로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아이디어와 발화방식은 다양한 영역과 층위에서 가능할 것 같다. 여기에는 사회적 공간으로서의 공공영역이나 개인의 일상적인 영역 모두 포함될 수 있다. 사회 변혁을 위한 이념적이고 정치적인 실천이 될 수도 있고, 개인의 요구와 욕망이 표현되고 연계되는 미시적인 실천일 수도 있겠다.

## ○ 예술의 사회적 실천과 새로운 공공예술의 점점 또는 가능성

현재 문화예술위원회가 ‘새장르 공공예술’ 을 통해 던지는 화두는 실험성, 공공성, 다양성이다. 다원예술 위원회도 아직 고민 중인 개념이기도 하다. 예술의 다양성과 실험성은 ‘새장르 공공예술’ 의 범주가 아니더라도 이미 주요한 화두였다. 지금까지 예술의 공공성은 복권기금에 의한 제도적 시행과 제도 밖에서의 자생적 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례를 만들어 왔다.

‘새장르 공공예술’ 은 다양한 해석과 정의가 가능하다. 따라서 어떤 실험인지, 누구를, 무엇을 위한 공공성이고 다양성인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그 의미와 효과 또한 다양하게 드러날 것이다.

우리가 지향하는 ‘새장르’ ‘공공예술’ 은 장르의 복합이나 새로운 장르, 탈장르, 그 이상이다. 기존의 예술 생태계를 뛰어 넘어야 한다. 즉 사회적 문맥 속에서의 실험성과 공공성, 다양성이 배치되고 생성되는 ‘새장르’ 이자 ‘공공예술’ 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 ○ 사회적 실천 발화 방식으로서의 문화행동(예술행동)

예술이 사회를 위한 에너지가 되기 위해서는 동시대에 대한 관찰과 분석을 통한 새로운 발화 방식 찾기가 필요하다. 기존의 방식이 너무 작품 중심이거나 개인적이었다면, 이제 예술과 예술가는 사회의 변화를 독해하며 문제를 제기하는 자, 다른 변화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주체여야 한다. 새로운 무엇을 창의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의 시공간이 중심이 되는 것이다. 삶과 일상 속에 드러나거나 보이지 않는 문제와 의미를 성찰하고 새롭게 보는 발화 방식 말이다.

이러한 문제제기를 통해 ‘예술의 사회적 실천을 위한 예술행동 매개 프로젝트’ 는 미시적이고 일상적인 영역과 사회적 영역 두 층위를 오가게 된다. 즉 사회와 일상의 변화를 위해 사회적 사건을 디자인하고 문화행동과 예술행동의 형태로 발화시키는 것이다.

## ○ 매개

사회적 공간의 공공성과 다양성, 매개성이 사라지는 작금의 현실에서 사회로 향하는 예술의 매개성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매개는 예술이 현실과 만나는 과정이자 사회를 다르게 보는 시선의 이음과 이음이다.

### 3. 실행 프로세스

- 일정 : 2007년 6월 ~ 12월
- 결과물 : 실천적 행동 / 자료집 / 잠재적 네트워크 구성
- 과정

구분	온라인 <a href="http://cafe.naver.com/nevertheless4">cafe.naver.com/nevertheless4</a>	오프라인
매핑	예술의 사회적 실천 사례와 동시대 사회적 이슈 스크랩	
이카이브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케이스 스터디를 통한 문제점과 발화방식 도출	
기획	기획 아이템 도출과 행동 기획 토론 / 사건디자인 / 네트워크 구성 / 행동 / 기록 / 담론 형성	
기록	정리 및 글쓰기	자료집 발간

### 4. 나가며

고백하자면, 아직은 모호한 사회적 실천과 매개를 말 할 수밖에 없는 이번 프로젝트는 결과보다는 과정의 생성을 강조하는 공공미술의 방법론과 닮아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사회에 대한 인식과 고민, 매개와 실천의 기획 과정을 통해 자극하고 반응하며 만들어지는 예술가, 기획자, 활동가들의 자가발전하는 사회적 에너지다. 자가발전하는 에너지는 미시적인 영역에서 자기 실천 과정을 만들며 사회 변화의 파동을 만들어갈 수도 있고, 현실에 개입하는 직접행동을 통해 구체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도 있다.

따로 또 같이. 그 이면에는 즐거움만큼 고통도 따를 것이다.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과정 자체가 어찌보면 고통의 과정일지도 모르겠다. 이제는, 기획의 단초가 된 예술사회적 실천의 지향점과 정의를 사회적으로 증명해 나가는 상상력과 구체적인 실천만이 남았다.

어찌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작업은 즐거운 것이란 믿음은 버리지 않을 작정이다. \*

## <사례발제 4>

# 과거의 신화가 공동의 꿈이 될 때 - 해망동 공공미술 프로젝트

전민정 (공화국리라 대표)

### 1. 들어가며

군산 해망동은 현재 행정상 존재하지 않는 마을이다. 옆의 신흥동과 통합되어 ‘해신동’으로 그 명칭이 바뀐 것이다. 그러나 해망동은 존재한다. 그것은 군산 사람들과 그 지역에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을 묶어내는 **심리적인 장소감** 때문이다. 군산에 사는 사람들은 해망동이라고 떠올렸을 때,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는 어떤 이미지가 있다고 한다. 또한 그 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도 자신의 환경에 대해서 때때로 말문을 열지 못한다. 이 침묵들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기껏 5개월가량 이 장소를 드나들며 작가들과 공공미술 작업을 진행한 기획팀의 한 사람으로 이 장소에 대해서, 해망동에 대해서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장소에서 진행한 ‘공공미술’은 해망동의 주민들에게 무엇이었을까? 즉, 이 프로젝트가 공공미술이라고 하였을 때 제대로 ‘공공성’ 혹은 ‘공공적인 장’을 만들어내긴 하였을까

### 2. 해망동으로의 초대

해망동에서의 ‘여행’은 막을 내렸다. 6월 말 문화관광부 공모안을 준비하면서부터 시작된 해망동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천야해일; 하늘은 밤이로되, 바다는 밤이로다’라는 주제를 내걸고 28명의 예술가와 시인, 소설가들이 참가하여 준비하였고, 9월 27일 그 막을 걸었다. 이후 약 한 달간 프로젝트는 외부에 공개되었고, 전국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해망동을 보러 왔다.

해망동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유달리 외부인을 향한 ‘장소화’를 노린 것은 해망동의 현재적인 모습에 대한 진단에서부터 비롯되었다. 전후 해변가에 피난민들이 자리 잡자 시에서는 이를 정비하기 위해서 월명공원 산비탈에 이들이 옮겨 살도록 하였다. 이때 생겨난 동네가 해망동인데, 산비탈에 빼곡히 누적된 집들과 그 사이로 필요에 따라 난 길들과 골목은 전형적인 산동네의 모습을 띠고 있다. 70년대, 80년대에는 해망동 앞 내항 일대가 수산업과 목재산업으로 호황을 맞으면서 이 동네 또한 방이 없어 세를 못줄 정도로 사람들의 유입이 왕성하였다. 앞 선착장에 나가면 갖가지 일들이 쏟아져 하루 일당을 챙겨올 수 있기에 이곳은 배운 건 없어도 몸뚱이만 있으면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는 그런 동네였다. 그렇지만 금강 하구둑과 외항이 생기면서 항구로서의 기능도 약해지기 시작하였고, 동남아시아가 목재산업에 뛰어들면서 그것으로 재미를 보던 시기도 지나버렸다.

마을은 점차 활기가 줄어들기 시작하였고, 젊은이들은 외지로 떠나갔다. 빈집이 하나 들 생기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고지대의 집들은 대개 비어져 있는 상태이다.

### 3. 어떤 꿈이 필요한가?

산업 구조의 변화로 특정 지역의 경제적 자생력이 흔들리고, 그 것을 바탕으로 살아 가던 공동체가 해체되어가는 모습은 비단 해망동에만 해당되지 않는다. 올해 문화관광부의 공공미술 시범사업들의 대상지역이 되었던 곳들 중 상당수가 이처럼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내몰린 지역들이었고, 재개발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동네들이었다. 이런 동네에서 공공미술을 시도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으며, 장기적으로 이 동네의 비전을 그릴 수 있는 꿈들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공공미술은 일시적인 ‘환각’으로 현재의 풍경을 위반하거나 분장하는 정도의 치장술에 지나지 않는다.

해망동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 지역의 ‘가능성’을 찾기 위해 몰두했다. 지역이 변화한다 하더라도 지역의 고유한 맥락과 장소성, 주민들의 목소리가 중심이 되는 변화였다. 또한 해망동과 같이 어업으로서의 생산력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동네에서 새로운 경제적 돌파구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 또한 고민이었다.

해망동 프로젝트는 이러한 장기적인 ‘공동의 꿈’을 그려나가기 위한 ‘습작’이나 ‘밑그림’에 해당된다. 우리는 해망동이 일제시기에서부터 근대기까지 품고 있는 다양한 시간대와 이제는 신화처럼 기억되는 마을의 번성기에 대한 그림을 몽타주שי킴으로써 대안적 여행지로서 해망동을 비추고자 하였다. 프로젝트는 ‘예술 여행’을 제안하기 위해 현실 가능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동네 곳곳에 제작하고 프로그램화시키는 형태였다. 빈집은 주인의 이름을 딴 ‘동네미술관’이 되었고, 마을은 일정한 투어 곡선을 그리며 여정 속에서 만나도록 접근되었다. 여정 속에서 만나게 되는 미술작품들은 동네의 풍경과 습착되거나 교묘하게 녹아든 형태로 동네의 특이성 그 자체가 예술로서 접근될 수 있도록 미술의 아우라를 슬며시 해장시켜 놓았다.

해망동이라고 하는 물리적 장소 개념에서 탈피하기 위해 우리는 해망동 주변의 근대 문화유산을 함께 둘러보는 몇 가지 테마기행을 제안하기도 했으며, 전국의 사람들에게 해망동을 구경할 것을 제안하는 홍보물을 뿌리기도 했다. 즉, 우리가 제안한 여행은 해망동 사람들에게만 해당되지 않았고, 모든 사람들이 이 곳을 경유하면서 삶에 대한 ‘성찰’의 시간을 갖길 원했다. ‘여행’이라는 시간과 공간적 변화를 한 대상지에만 국한시키지 않았던 것은 해망동에는 외부인들의 유입과 흐름의 물꼬가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에서였다.

이러한 자본적 아이템의 비자본적 ‘제안’으로서의 해망동 프로젝트가 장기적인 힘을 갖고 계속적으로 진화해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마을의 주체가 대등하게 서 있어야 했다. 그러나 해망동의 주민들은 고령의 노인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고, 이러한 장기적인 그림을 함께 공유하기에는 현실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었다. 할머니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꿈’보다 당장의 도움이 되는 복지이고 설비적인 접근이었다. 물론 그것이

무가치하다는 말은 아니다. 또한 마을을 대표할 수 있는 분명한 대표자나 주체가 부재함으로 인해서 이를 중간에서 매개하고 설득하는 것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다. 그리하여 우리의 그림은 프로젝트의 진행과정에서 개별적인 요소로 흩어져 버리거나 몇 가지 형식적인 틀로 제안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적인 실패가 프로젝트의 실패라고 볼 수는 없다. ‘습작’은 결과를 염두에 두지 않는 과정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번의 습작은 주민과 우리가 서로의 얼굴을 익히고, 친밀해지며, 서로의 차이를 조금씩 발견해 가는 탐색기간이 아니었을까.

#### 4. 정치화의 장으로서의 공공미술

보통 공공미술이라고 떠올렸을 때 머릿속에 그려지는 ‘선한 이미지’는 공공미술에 대한 과도한 낙관과 ‘공공성’에 대한 막연한 기대 때문에 생긴다. 폐쇄적인 자기회로에 빠져있던 미술이 삶의 시간대 속으로 접근해 가는 실험은 유의미하지만 ‘바깥으로!’라는 단서 하나만으로 모든 프로젝트가 ‘좋다’고 말할 순 없다. 정부나 관료가 말하는 ‘공공성’과 자본이 말하는 ‘공공성’, 그리고 배제되고 소외된 집단과 공동체가 스스로 말하는 ‘공공성’은 정치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확연한 차이를 지니고 있다. ‘공공성’은 누군가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차이와 배제, 축출의 논리에 대한 저항을 바탕으로 하여 자기 스스로 주체화의 경험을 갖는 과정이다. 즉 자신의 삶과 철학,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입장 등을 스스로 말하고 판단할 수 있는 정치화의 경험 혹은 그 장이 구성되어 지는 순간이 공공성인 것이다.

그렇다고 본다면 해망동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쇠멸해 가는 지역을 어떻게 예술적 상상력으로 다시 한번 그려볼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 **자본주의적 개발주의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고자 하였다. 이런 측면에서는 공공적인 성격을 띠지만 그 내부로 들어가보면, 여전히 예술가집단과 주민들 간의 역동적인 ‘구성의 장’은 쉽지 않았다. 예술가들의 실행에 대해서 주민들은 정보나 장소 제공자 혹은 간단한 작업을 요구하는 의뢰자였다. 주민들은 공동의 꿈을 그려나가는 파트너로, 또는 새로운 문화생산자로 한걸음에 변화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 가지 주목할 점은 해망동에 있는 ‘노모정’의 존재이다. 이분들의 경우 처음부터 기획팀에게 ‘미술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보일러 설치’라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초기에 이분들의 요구는 프로젝트의 성격과 다른 것이어서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에 와서 보면 이분들의 이러한 적극적인 의사표현이 나는 공공미술이라고 본다.

이분들은 자신의 현실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고 무엇보다 필요한 것들을 자각하고 있었다. 이에 기획팀은 사진과 에세이를 곁들여 노모정이라고 하는 할머니들의 커뮤니티를 온라인상에서 유포시키고 기금을 마련하는 ‘예술 캠페인’을 고안해내었다. 이와 같이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목소리를 만나게 되면, 새로운 ‘언어’를 개발하게 된다. 그 언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미술적인 언어와는 다르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창

의적 언어라는 측면에서 ‘공공미술’의 새로운 언어가 될 수 있다.

이처럼 현장과 미술이 만날 때, 공공적인 장은 주민과 공동체가 서로의 입장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즉, ‘대면’ 하면서부터 ‘관계’는 만들어진다. 일방적인 예술가 집단의 지역에 대한 재현이나 언어화는 정부기관이 미사여구를 사용하여 도심재생 그림을 그리는 것과 그다지 다르지 않다. 문제는 누구와 함께 그 문제를 의논하고 만들어 가는가이다. 이 과정은 문제가 없는 순탄한 소통 과정이기보다는 입장과 입장이 부딪히고 논쟁이 일어나는 비평적 장이다. 즉, 공공미술에 대한 일반적인 ‘따뜻하고 선한’ 이미지는 공공미술에 대한 외형적 결과만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생긴다. 즉, 공공미술이 정치의 영역이자 문화의 영역이 될 수 있는 지점은 **각각의 단자들이 이루어내는 역동적인 구성**에 근거한다.

해망동에서의 여행은 다음을 기약하고 있다. 모두들 떠나버린 그 공간이 쓸쓸하게도 느껴지지만, 다음 여행에 대한 기대감으로 내년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예술가와 할머니들, 그리고 주민들과의 관계도 시간이 쌓일수록 누적되어 단단한 토양을 형성할 것이다. 그것은 예술에 대한 신뢰이기 이전에 사람에 대한 신뢰이고 관계에 대한 신뢰이다.

해망동의 신화가 예술가들의 상상력과 만나 공동의 꿈으로 다시 한번 위치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요구된다. 그리고 여전히 해망동은 예술가들을 부르고 있다. 해보아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고, 또한 주민들도 슬그머니 무언가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제서야 여행은 시작인지 모른다.

## 5. 귀향 프로젝트: 군산 내항의 역사적 생산자와 memorial place 만들기

### 1) 기획배경

- 해망동과 어판장
- 해망동 프로젝트 오픈 이후의 새로운 단서들
- 공동체의 쇠퇴와 해체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 장소특정적 프로젝트의 한계
- 프로그램과 공간화의 관계

### 2) 컨셉

- 생산지와 주변 주거지의 변형과 쇠퇴의 근원을 밝히는 작업
- 생산자(마이네리티)의 동력학 추적
- 비물리적인 형태로서의 공동체성: 심리적, 정서적 공동체 드러내기
- 자본주의적 소도시 변형속에서 공동체의 심리적, 공간적 변화과정 밝히는 작업

### 3) 키워드

- 시간 지리학
- 프로세믹스

- 시간성을 매개하는 공공미술
- 은유, 시학으로서의 공공미술
- 공동저작

#### 4) 방법론 : “장부를 찾아라” + “유랑 사진관”

- 탐정
- 옴니버스 : 다음사람에게 전하는 ‘엽서’
- 떠돌이 활동사진가: 과거와 현재의 해망동과 어판장 모습이 담긴 환등기
- 두 가지 지도: [환경자전]과 [유랑지도]
- 온라인 활용 ; 기록의 누적
- 다큐멘터리
- 새로운 장부와 과거의 장부
- 공간 습착형태의 기념화 방식
- 생애사 구술
- 드로잉

#### 5) 진행일정

- 기초 리서치 작업 \_ 6월
- 시놉시스 \_ 7월
- 현장 촬영 \_ 8, 9월
- 공간 기념화 작업 - 9월 말
- 영상 상영회 - 10월 초

<사례발제 5>

삼덕동 마을공동체 작업장 \_ 프로젝트 2007, 門花-(문화)

김경민 ( 대구 공간문화센터 대표)

1.

◆ 사업일정: 2007년 3월 1일 ~ 8월30일

◆ 장소: 1.대구 중구 삼덕동 222번지 한옥집과 그 일대  
2. 마을미술관 '빛슬미술관'

◆ 기획의도: 삼덕동 마을작업장은 프로슈머로서의 잠재력을 지닌 마을의 주부, 어린이, 청소년 등과 지역의 예술가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생활공간 속의 문화공동체네트워크다.  
'門花(문화)' 는 그 첫 번째 프로젝트이다.

■ 3월 ~ : 공간기획

\* 문(門)설치작업- 문 및 작업공간 시설확충·공간이미지 연출 작업

\* 작업장 간판제작 작업, 홍보, 인터넷카페 운영 등

\* 삼덕동 마을 공동체작업장 운영진 구성: 총괄기획- 김경민(대구 공간문화센터 대표)

예술감독- 김정희(설치 미술가)

운영진- 백은경(서양화가), 신혜영(깨비예술시장)

작업장 자원봉사자 -모집

■ 4·5월 ~ : 공동체작업장 작업 개시 ~

\* 제 2회 삼덕동 인형마임축제 '장옥진 그림 속 마을' 중심으로

일시: 2007. 5. 4 ~ 6

인형 만들기 워크숍 - 재활용품을 활용한 인형 만들기

-자기가 만든 인형과 함께 거리퍼레이드, 인형설치, 해프닝에 참여

■ 6월 ~ : 문화마을 강좌 및 작업장 작품전시·판매

\*강의 - 주제: '문화가 있는 마을을 꿈꾸자'

강사: 김찬호(한양대학교 사회학과) -마을주민과의 토론, 다과

■ 7월 ~ : 마을이 작품이다 ⇒ 문화마을공동체의 주력사업

- \* 마을주민과 작가가 함께 만들어 가는 문패 만들기 및 대문 가꾸기
- \* 문패 만들기 작업: 총 100가구. 마을홍보 및 디자인회의, 주민공동작업, 보완, 달기
- \* 대문이 작품 작업: 총 20가구. 마을홍보 및 디자인회의, 주민공동작업, 보완,  
대문 주변 가꾸기 등

■ 8월~: 전체일정 마무리 작업

- \*어린이 재활용 그림대회 및 전시회(공동 사업자: 대구YMCA, 에너지시민연대)
- \*삼덕동 문화마을 마을잔치- 마을주민 모두가 어울어짐  
작업장 작품전시·판매: 재활용품 리폼한 작품들,  
생활수공예품등 사업기간동안 만든 작품들  
어린이 및 청소년 작품
- \*앞으로의 문화작업장 운영·발전방안 마련

## 2. 제2회 삼덕동인형마임축제 - 머머리섬2007

- 주최: 삼덕동인형마임축제 조직위원회
- 주관: 대구공간문화센터
- 협력기관: 아트포럼 일상의 예술
- 협찬: K.D.C 깡
- 후원: 장육진미술문화재단

### 1) 삼덕동인형마임축제는

마을의 생활공간을 바탕으로 삼는(site specific) 예술축제입니다.  
 마을주민이 조직위원회를 만들어 축제에 마을의 꿈과 정성을 담습니다.  
 지역 예술인들이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축제의 틀과 방향을 정하고 판을 만듭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인형극 또는 마임을 하는 예술가들이 모여듭니다.  
 마을주민과 지역의 어린이들이 스스로 인형을 만들어 퍼레이드를 벌입니다.  
 주제에 따른 환상적인 설치미술과 해프닝으로 골목골목이 축제의 장으로 변합니다.  
 삼덕동인형마임축제에는 따로 공연무대가 없습니다.  
 골목과 가옥의 마당 등 마을의 생활공간이 인형극 및 마임의 표현공간이 됩니다.  
 마을공간을 환상으로 가득 채우는, 예술을 매개로하는 현대적인 마을 곳입니다.

### 2) 삼덕3동은

1997년 이래 지속적으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마을로

대구 담장허물기운동의 출발지이기도 하다.

몇몇 문화활동가와 주민 그리고 대구YMCA의 협력과 지원으로 마을국악원(마고재), 마을미술관(대구YMCA 비슬미술관), 녹색가게, 일자리창출주민지원센터 등 문화기반시설을 확보하고, 담장허물기운동을 비롯 벽화그리기, 원룸반대운동, 마을어린이 그림 그리기 행사, 마을잔치, 다양한 문화공연을 펼쳐왔다.

최근 전국 마을만들기운동의 지역네트워크 성격의 대구공간문화센터를 열고 그 첫 사업으로 2006년 5월 5일-7일 제1회 삼덕동인형마임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 3) 2007.5. 4金 - 5. 6日

삼덕3동 마을 일대

골목/대구YMCA 빛슬미술관/마을국악원 마고재/주민자치센터

어린이이동도서관 '코코' /개인주택의 마당/삼덕초등학교 쉼터 등

주제 : 장옥진 그림 속 마을

### 4) Program

-인형 만들기 워크숍 4일~

[아트포럼 일상의 예술/ 백은경, 신혜영]

#### \* 5월 4일 金

프리 이벤트 및 전야제

오후 4시-9시 / 마을국악원

#### \* 5월 5일 土

개막행사

오전 10:00 / 삼덕초등학교 벽화연못 일대 인형 거리 퍼레이드

오전 11:00 - 12:30 참여인원 400명

동선 : 삼덕초등 - 달구벌대로 - 동성로 - 국채보상로 - 삼덕초등

골목카페, 주민이 운영하는 '우리마을 먹거리 장터'

골목 해프닝

인형/마임 공연

(15개 극단)

『2:00 - 3:30 5개 극단』

『3:30 - 5:00 5개 극단』

『5:00 - 6:30 5개 극단』

장옥진의 밤

7:00 - 9:00 4개 극단 특별 공연 및 난장

#### \* 5월 6일 日

인형/마임 공연

(15개 극단)

『1:00 - 2:00 5개 극단』

『3:00 - 4:00 5개 극단』

『4:00 - 5:00 5개 극단』

골목카페, 주민이 운영하는 ‘우리마을 먹거리 장터’

골목 해프닝

인형 거리 퍼레이드

오후 5:00 - 6:30 참여인원 200명

동선 : 삼덕초등 - 달구벌대로 - 동성로 - 국채보상로 - 삼덕초등

삼덕동인형마임축제 폐막식

『피날레 행진 및 극단 소개 폐막공연 난장』

## 5) Performer & Staff

[조직위원회]

조직위원장 : 김두철 (주)대경물산 대표이사

- 조직 위원 -

김경민 (대구공간문화센터 대표, 대구YMCA 관장)

이 성 (성건축 대표) 박성우 (백산한의원 원장)

김신근 (김신근 산부인과 대표) 김성희 (대구 카톨릭대학 의대 교수)

이외선 (삼덕초등학교 교장) 이창환 (토담건축사무소 대표)

박용승 (LG 자동 판매기 회사 대표) 장상기 (황금중학교 교사)

박종하 (한국 신학대학 석사 과정) 이순애 (포도나무 맹인선교회 대표)

이명향 (삼덕동 새마을 부녀회장) 전갑순 (삼덕동 3가 통장)

박형규 (짱구알탕 대표) 김삼문 (치킨코아 대표) 이성황 (진곰탕 대표)

박치훈 (길명후레임 대표) 박영구 (녹향미용실 대표)

권오용 (소망홈패션 대표) 박동진 (동진슈퍼 대표) 박정지 (대길문구사 대표)

이영숙 (삼덕동 마을 주민) 남춘남 (삼덕동 마을 주민) 김점식 (삼덕동 마을 주민)

최용일 (삼덕동 마을 주민) 전영필 (삼덕동 마을 주민) 김영재 (삼덕동 마을 주민)

이보환 (삼덕동 마을 주민) 윤경순 (삼덕동 마을 주민)

정호열 (대구공간문화센터 사무국장)

[STAFF/추진위원회]

- 총 감독: 조성진(한국마임협의회 회장)
- 예술감독 : 엄정애(극단 인형엄마 대표/춘천인형극제 퍼레이드감독)
- 미술감독: 김정희(설치작가 일상의 예술 대표)
- 사무총장: 김경민(대구YMCA 관장)
- 인형워크숍 총괄: 백은경(서양화가), 신혜영(개비예술시장 대표)
- 기획전시: 장옥진미술문화재단

## <사례발제 6>

### 벽 in open space at 1830 Project

이철성 (비주얼씨어터컴퍼니 꽃)

#### 0. 사업 목적 및 기획 의도

▶ 다차원적인 예술의 일상적 접근 & 예술을 통한 나눔, 나눔을 통한 예술

-미술(회화)과 연극, 음악의 서로 다른 차원의 예술적 결합을 통하여 다양성을 모색하고 있는 한국 공연계에 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사람들이 가장 붐비는 일정한 <열린공간 (예-역, 터미널 등)>에서 일정한 시간(예-출, 퇴근시간))에 공연형식과 워크샵(참여 가능한) 형식으로 프로젝트화 하여, 하나의 공연화하는 작품을 함으로서, 예술과 관객과의 만남, 즉 예술을 통한 나눔. 그리고 나눔을 통한 예술의 컨셉을 실현해 보고자 한다.

▶ 축제 공식 초청으로 입증된 공연 레파토리를 열린공간 / 열린시간 구조의 공공적 현장 적용.

#### 1. 행사개요

1-1. 공연명 : 『벽 in open space at 1830 Project』 (가제)

1-2. 공연성격 : 일상적인 오브제들의 결합을 통한 페인팅 퍼포먼스

1-3. 공연목적

1) 다양한 차원의 오브제들의 결합을 통한 새로운 형식의 공연미학 창출

2) 일상적 공간의 재해석을 통한 관객과의 소통 및 축제의 장 마련

3) 관객의 공연의 직접 참여에 의한 체험제공 및 공연에 대한 주체성 부여

1-4. 공연일시 : 2007년 7월 (예정)

1-5. 공연장소 : 지하철 역 / 광장 등 - 일주일간 사용가능한 곳으로 컨택 중

1-6. 주최 : 비주얼씨어터컴퍼니 꽃

1-7. 기획 : 서울변방연극제 사무국

1-8. 협찬 : 지하철 공사 등 (섭외 예정)

## 2. 행사내용

### 2-1. 공연의 컨셉

같은 공간	일정한 시간	같은 시간	공연프로그램	참여프로그램
지하철 역 광장 터미널 등	일정한 기간의 일주일	퇴근 시간 18:30	페인팅 퍼포먼스 벽	벽에 그리는 일반인들의 낙서 퍼포먼스
<p>■ 1830 Project ? : 퇴근 시간 18시 30분에는 어떤 공간에 특별한 사건이 벌어진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일주일의 기간 동안 설치된 벽 위에 사람들은 낙서를 할 수 있고,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일상적으로 보아오던 역, 혹은 광장, 혹은 터미널에서 정체 모를 낙서와 행위들의 흔적을 보게 된다.</li> <li>2. 매일 저녁 퇴근시간 사람들은 어디선가 그 “벽”위에서 그림을 그리고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li> <li>3. 행위자들은 지나가는 사람들과 함께 그림을 그려 나가는 작업을 퍼포먼스를 통해 해프닝화한다.</li> <li>4. 사람들은 지나가며 참여하기도 하고, 구경하기도 한다.</li> <li>5. 일주일간 지속되는 동안, 만일 매일 같은 시간에 퇴근하는 단 한사람이라도 있다면, 그는 이 일주일간의 전체 퍼포먼스 공연을 관람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 벽에 기록된 낙서와 행위의 흔적들을 통해 작품을 감상하게 되고, 그 의미들에 대해 반추하게 된다.</li> <li>6. 마지막 날은 이 모든 행위물을 기록하고 촬영했던 장면들을 가지고, 그 공간에서 공연화한 공연 및 기록 촬영 프로그램을 상영한다.</li> <li>7. 이 프로젝트는 한 장소에서, 일주일간, 같은 시간대에 진행되는 하나의 컨셉을 가지고 있으며, 실행가능성 (장소등과의 긴밀한 협조) 등에 따라 여러 장소에서 할수도 있다.</li> </ol> <p>※ 이 작업에서의 공공성과 참여와 나눔은, 작품 속 해프닝을 통해 실현되며, 참여하는 자들 모두 예술가가 될 수 있으며, 어떤 적극성을 끌어낼 수 있는가 하는점. 그리고 이러한 참여를 보는 관점에 따라 “작품이 되기도 하고, 관조자가 되기도 한다”</p>				

### 2-2. 공연 내용

‘흰 빈 벽 위에 그려지는 헛된 욕망의 꿈!’

‘흰 벽 위에 두 개의 몸이 그려내는 환상 코믹 페인팅 퍼포먼스!’

가두려는 자와 벗어나려는 자의 욕망은 과연 다른가? 가두려는 자가 갇히고, 벗어난 자가 가두는 자가 되는 ‘아이러니’ 를 다룬 작품. 2차원 재료인 흰 벽, 검은 선들과 3차원 재료인 몸, 그리고 음악이 함께 창조하는 페인팅 퍼포먼스.

※ 어떤 장소에서 공연하느냐에 따라 관객 대상층이 다변화 할 수 있음

### 2-3. 공연 진행

무대를 이루는 오브제인 벽은 공연 시간과 상관없이, 개방적인 공간으로 상설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일상적인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부여한다. 이러한 공간은 공연의 진행과 동시에 일상적인 공간에서 예술적인 공간으로 재구성되며 공간을 점유하는 주체는 공연자와 관객으로 나누어질 것이다. 하지만 공연장(벽)은 관객에게 개방적인 공간이며, 관객의 움직임(페인팅)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행위는 다시 관객의 행위를 유발하는 소통의 도구로서 사용된다.

이러한 관객과의 소통의 과정들을 통해 관객은 하나의 오브제로, 때로는 공연자로서 공연을 만들어가는 주체가 된다.

또한 공연의 중반부의 ‘그림 지우기’와 ‘물감 던지기’는 놀이의 형식으로 공연을 이루고 있는 갈등 구도의 해소를 표현함과 함께, 흥겨운 놀이형식을 취함으로서 축제로서의 장을 마련한다.

